

## 미얀마-인도 정상회담 개최

김미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

## 주요내용

- ▶ 2017년 9월 5~7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미얀마를 국빈 방문하여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과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.
- ▶ 두 정상은 대표적 인프라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교통, 에너지, 안보, 인적교류 및 기술 부문 협력에 합의함.
- ▶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으로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미얀마 입장에서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, 인도 입장에서는 북동부지역 개발, 신동방정책 추진, 대중국 견제를 들 수 있음.
- ▶ 미얀마와 인도는 주변외교와 협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됨.

## 1. 이슈 현황

- ▶ 2017년 9월 5~7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미얀마를 국빈 방문하여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과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.
- 인도는 주변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신동방정책(ACT East)을 본격화하기 위해 아세안 진출 관문인 미얀마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.
  - 2014년 당선된 모디 총리는 이전 싱 정부의 동방정책(Look East)을 발전시켜 신동방정책을 수립하고 인도와 동아시아 간 교역 증대와 연결성 강화를 추진 중임.

▶ 두 정상은 대표적 인프라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교통, 에너지, 안보, 인적교류 및 기술 부문 협력에 합의함.

□ 양국은 칼라단 복합운송개발계획(Kaladan Multi Modal Transit Transport Project)의 거점항인 미얀마 서부 시트웨항의 소유·운영권을 공동 보유하기로 합의함.

- 2010년 인도의 ODA 사업으로 시작된 칼라단 사업은 인도 동북부를 미얀마 서부 시트웨항을 통해 인도 동부 캘커타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트웨-팔레토 수로가 완공되었고 마지막 단계인 팔레토-인도국경 육로 건설이 진행 중임.

□ 두 정상은 인도-미얀마-태국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타당성 조사를 실행하고 2012년 인도가 공여한 차관 5억 달러 내에서 해당구간을 건설하기로 합의함.

- 2016년 미얀마 신정부 수립 이후 재개된 인도 국경 모레-미얀마 만달레이-태국 매솟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인도 국경 타무 구간이 건설 중이며 2020년 완공 예정임.

□ 미얀마는 인도 기업의 에너지 부문 진출 확대를 요청하였고 인도는 미얀마에 전통·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조를 약속함.

표 1. 2017년 인도-미얀마 정상회담 주요 합의 사항

분야	내용
교통	타무-만달레이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, 파코쿠, 칼레이 공항 개발
에너지	전력 원조, LED조명 보급, 태양광에너지발전소 타당성 조사
안보	해양 안보, 국경감시시스템 협력, 인도-미얀마 해군 정보 공유
인적교류	2017~2020년 문화교류 프로그램, 의약품 규제 및 보건·의학 협력, 인도-미얀마 중앙언론위원회 협력
기술	미얀마 야메틴 여성경찰훈련센터 개선, 미얀마정보기술연구소 및 인도-미얀마 IT 기술역량강화센터 설립 협정 연장

자료원 : 인도 외무부, 인도 언론정보국.

## 2. 원인과 분석

▶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으로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미얀마 입장에서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, 인도 입장에서는 북동부지역 개발, 신동방정책 추진, 대중국 견제를 들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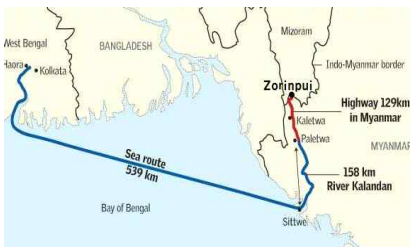
□ 미얀마는 인도와 인접한 유일한 동남아 국가로 인도의 대아세안 주요 협력국가이나 양국의 경제협력은 낮은 수준임.

- 2016년 인도와 미얀마의 교역액은 21억 달러이나 중국과 미얀마의 교역액은 102억 달러에 달했

으며, 2011~16년 누적 기준 인도의 대미얀마 투자액은 2천만 달러이나 중국의 대미얀마 투자액은 23억 달러를 기록함.

- 미얀마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존도 축소를 위해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.
- 인도는 본토와 사실상 격리된 북동부 낙후지역의 개발 가속화, 신동방정책 추진 강화,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미얀마와 관계 강화를 추구함.
  - 2017년 6월 인도와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이며 인도 북동부와 인접한 도클람(Doklam)에 중국이 도로건설을 시도하여 중국군과 인도군이 70일간 대치함.

그림 1. 칼라단복합운송개발계획



자료원 : www.examveda.com.

그림 2. 인도의 대미얀마 교역

(단위: 십억 달러)



자료원 : IMF DOTS.

그림 3. 중국과 인도의 대미얀마 투자

(단위: 억 달러)



자료원 : ASEAN 사무국.

### 3. 전망과 시사점

▶ 미얀마와 인도는 주변외교와 협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됨.

-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AARC)의 진전이 더딘 가운데 인도가 벵골만이니셔티브(BIMSTEC)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가 미얀마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.
- 2017년 8월 인도정부는 미얀마, 네팔, 부탄, 방글라데시 등 접경국가에 건설하는 도로와 철도를 태국, 캄보디아, 라오스, 베트남까지 확장할 계획을 밝힘.
- 다만 인도와 미얀마 간 주요 협력 사업인 칼라단 사업의 거점항 시트웨항과 수송로 일부가 로힝자 난민 사태 발생지인 여카잉주에 위치해 개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 **EMERiCs**

참고 1. 인도 북동부 7개주



자료원 : Tribal Cultural Heritage in India Foundation에서 재인용

#### 💡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